

한국교회 주일학교 위기와 대안

- 242주년을 맞는 주일학교, 다시 한번 부흥을 소망한다. (민경수 목사)
- 주일학교(Sunday School)는 언제 생겼을까? (심우진 교수)
- 한국교회 주일학교 위기와 대안 (1) 주일학교 무엇이 위기인가? (이정현 목사)
- 한국교회 주일학교 위기와 대안 (2)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정현 목사)
- 한국교회 주일학교 위기와 대안 (3) 세대통합교육 (이정현 목사)
- 긴급진단 - 사라지는 다음세대, 이대로 좋은가(상) - “2030년 주일학교 90% 사라질수도” 비관적 전망
- 긴급진단 - 사라지는 다음세대, 이대로 좋은가(중) - “교회교육, 고민하고 부딪히면 분명 답은 있다”
- 긴급진단 - 사라지는 다음세대, 이대로 좋은가(하) - “교단은 지원 힘쓰고 가정 역할 강조하라”

■ 242주년을 맞는 주일학교, 다시 한번 부흥을 소망한다

복음기도신문 / 2022년 4월 30일 / 민경수 목사. 선교사 (본지 영국 통신원)

올해는 ‘주일학교 운동’이 242주년을 맞는 해이다. 오는 5월 21일 가정의 달 기념일로 엄마와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패밀리(FAMILY, Father and Mother And I Love You)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날을 지킨다. 이날 주일학교 운동의 창시자인 로버트 레이크스의 고향인 글라우체스터 공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야외 예배가 진행된다. 그 이후 레이크스에 대한 교육과 기념지 방문이 이어질 계획이다.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은 1780년 영국이 산업혁명 시기에 매우 혼란스러운 때였다. 여러 가지 범죄가 사회에 범람했으며,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다. 대부분 산업 현장으로 내몰려 설 새 없이 격무에 시달려야 했던 아이들은 너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내몰렸다. 이런 상황에 당시 영국인의 평균 수명은 40세가 채 되지 못했다.

당시 인쇄업을 하던 레이크스는 범죄자들의 교화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들여 25년간 교도소를 찾아다며 노력했다. 그러나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부딪치자, 그는 무엇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주일학교였다.

당시 레이크스는 스톡 목사님과 함께 수티 엘리라는 곳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하지만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 가정집으로 전전한다. 그러다 학교 운영시간과 방식이 조금씩 자리잡으며, 오전 10~12시, 오후 1~5시에 글읽기, 손씻기, 얼굴닦기, 머리빗기 등을 비롯 성경을 가르치며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몇 년 간 진행된 레이크스의 주일학교는 5년 뒤인 1785년 무렵 각 교회의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 수가 25만 명에 이르렀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귀족들은 주일학교를 ‘자기들의 선량한 종들을 선동해 임금상승을 부채질하는 나쁜 집단’으로 간주하고, ‘위험스럽고 비도덕적인 악마의 기구’라고 정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는 계속 영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그리고 레이크스 사망 20주기인 1831년 그의 동상 제막 식전 무렵, 주일학교 학생수는 1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레이크스의 주일학교 운동은 이후 세계로 뻗어나가 1851년 스웨덴에서 7000개의 학교와 32만 명의 학생, 2만 4000명의 교사가 세워졌다. 네덜란드에서는 1865년에 2000개의 주일학교와 21만 명의 학생이 세워졌으며, 독일에서는 1891년에 9000개의 학교와 95만 명의 학생이 일어났다. 한국의 주일학교는 1888년 1월 15일 스크랜턴 부인의 주도로 이화학당의 한 단칸방에서 어린이 12명, 부인 3명, 선교사 4명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1905년 선교연합공의회 안에 주일학교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주일학교가 공식적으로 설립 운영됐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주일학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예장 통합총회에 의하면 해마다 주일학교가 감소해 2019년에 4만 3461명으로 2010년 7만 4327명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주일학교 242년을 맞는 올해 다시 한 번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 주일학교(Sunday School)는 언제 생겼을까?

심우진 교수 著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사 및 석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신학박사, 현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부교수

● 기득권층의 반대 속에서

주일학교의 창시자는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 1735-1811)다.

그는 영국 글라우체스터에서 1780년 세계 최초로 주일학교를 설립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한창이었고 사회는 극도로 혼란했다. 여러 가지 범죄가 범람해서 이름조차 붙이기 힘든 범죄(nameless Vices)가 넘쳐났다.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으며, 교육은 귀족들을 비롯한 극소수만 받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산업현장에 내몰려 설 새 없이 일해야 했다. 너무나도 비위생적인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영국인의 평균수명이 40세가 못되었다.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 1735-1811)

인쇄업을 하던 레이크스는 범죄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들여 25년간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노력하다가 자포자기하고 말았다. 결국 그는 무엇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그가 주일학교를 설립하는 계기가 된다.

레이크스는 스톡 목사와 함께 1780년 글라우체스터의 수티 엘리(Sooty Alley)라는 곳에서 킹 여사(Mrs. King)를 교사로 임명하여 주일학교를 시작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는 메레디스 여사(Mrs. Meredith)의 부엌으로 자리를 옮긴 후 메레디스 여사를 교사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질이 너무나 빠 곧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다.



로버트 레이크스와 학생, 삽화출처 라이프웨이리서치.

레이크스는 또다시 크리스츨리 부인(Mrs. Christchley)의 집으로 주일학교 장소를 옮기는데, 여기서 비로소 안정되기 시작했다. 주일학교는 오전 10-12시, 오후 1-5시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가르친 내용은 ‘글 읽기, 손 씻기, 얼굴 닦기, 머리 빗기’ 등을 비롯하여 성경을 가르쳤고 예배를 드렸다.

레이크스의 주일학교는 성공적이었다. 1783년 글라우체스터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켜서, 주일학교가 설립된 지 불과 5년 후인 1785년 각 교회의 주일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가 영국에서만 25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주일학교 운동은 영국의 교회와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영국교회와 귀족사회는 주일학교를 “위험스럽고, 비도덕적이며, 악당의 조직이고 더 나아가 악마의 기구”라고 정죄했다. 당시 영국교회의 주교는 모든 사제들에게 통보하여 주일학교를 저지하도록 지시했고, 귀족과 부유층들은 주일학교야말로 자기들의 선량한 종들을 선동하여 임금 상을 부채질하는 나쁜 집단이라고 정의했다.



로버트 레이크스의 동상

그러나 이러한 교회와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는 설립된 지 5년 만에 학생 수가 25만 명에 이르렀고, 레이크스 사망 20주기인 1831년 레이크스의 동상을 제막하는 식전에서는 주일학교의 학생 수가 125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됐다. 레이크스는 죽으면서 “나에게 작은 저금통장이 있는데 이 돈으로 아이들에게 빵을 사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 세계로 확대된 주일학교 운동

레이크스의 주일학교 운동은 곧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1851년 스웨덴에서는 7,000개의 주일학교와 32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 24,000명의 교사를 보유하게 되었고, 1865년 네덜란드에서는 2,000개의 주일학교, 21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을, 1891년 독일에서는 9,000개의 주일학교와 95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을 보유하게 되었다.

레이크스는 1803년 주일학교협회(Sunday School Society)를 설립했는데, 협회는 학생들을 가르칠 교재를 통일적으로 만들 필요성을 느껴서 ‘통일공과’를 발간했다. 약 100년 후 20세기에 들어오면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수준별로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계단공과’를 출간했다.

레이크스의 주일학교 운동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교회가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레이크스가 주일학교를 설립한지 불과 10년 후인 1790년, 당시 미국의 수도이자 중심지였던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주일학교협회가 설립되었고, 이것을 필두로 각 주별로 주일학교협회가 설립된다. 그 후 1824년 주일학교연맹(Sunday School Union)이 설립, 이 연맹이 미국 전체의 주일학교를 관장했다.

1889년 런던에서 처음으로 제1차 세계주일학교대회가 개최됐고, 1907년 제5차 로마대회 때, 영국, 미국, 유럽대표들은 ‘세계주일학교협의회’를 발족했다.

한국의 주일학교는 1888년 1월 15일 스크랜턴 부인의 주도하에 이화학당의 한 단칸방에서 어린이 12명, 부인 3명, 선교사 4명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1905년 선교연합공의회 안에 주일학교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주일학교가 공식적으로 설립되는 계기를 맞는다.

1907년 로마에서 열린 제5차 세계주일학교대회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의 한국 주일학교 수는 전국에 613개였으며, 학생은 45,918명, 1913년 제7차 대회에서는 한국 주일학교 수가 2,392개, 학생 수는 119,496명으로 보고됐다. 1913년 세계주일학교협의회 부회장인 하인즈가 내한했을 때, 그를 환영하는 주일학교대회에는 14,000명이나 운집하기도 했다. 1921년 전국주일학교대회가 열렸는데,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궁혁 박사가 초대 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주일학교는 1911년부터 미국의 통일공과를 번역하여 주일학교 교재로 채택하였으나, 1927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계단공과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1960년대 초반 미국 유학파들이 귀국하는 것을 계기로 각 신학교 별로 기독교교육학과가 신학과에서 분리되어 설립된다. 이들은 주로 루이스 셰릴의 ‘만남의 기독교교육’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영향은 우리에게 친숙했던 80년대의 <말씀과 삶> 시리즈나 2000년대부터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 부르심과 응답> 시리즈에 배어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1903년부터 1940년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적 진보학과(종교교육협회, R. E. A.)의 영향을 따른 것이다. 일반적인 공교육이 차츰 보편화되면서 이들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종교적 진보학파는 단순히 요일을 가리키는 주일학교, 즉 Sunday School 보다,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주체를 가리키는 교회가 포함된 교회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현재 한국교회에서도 초창기부터 줄곧 사용하던 주일학교라는 용어 대신에 대부분의 교단이 교회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교회학교를 살려야 할 시대적 사명

필자가 독일에서 유학하던 1990년대 후반에 독일 원로 신학자들에게 독일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할 기회가 있었다.

“현재 독일교회에는 성도들이 없고 텅텅 비어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독일교회의 상황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래 독일교회에는 성도들이 넘쳐났었다. 특히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거리마다 넘쳐나는 시체를 본 독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교회마다 앓을 자

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청바지, 통기타, 히피 등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청년문화가 등장했다. 이때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대거 이탈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자녀도 함께 이탈하면서 교회학교가 대부분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 문화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는 워낙 불량스럽게 보여서 설마 이것이 교회를 위기에 처하게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1970년대의 10여년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두 세대가 한꺼번에 이탈하면서 교회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지금은 이러한 이탈 세대의 부모 세대인 노인들만이 이미 텅 비어 버린 교회를 지키고 있다.

독일 교회의 원로들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전 교회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했을 것”이라며 무척 아쉬워했다.

한국의 교회학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때 한국교회 부흥의 견인 역할을 하였는데, 지금은 그 반대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소규모 교회의 경우 교회학교 부서가 아예 모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교회학교가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으로는 저출산, 토요일 휴무, 놀이문화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가 지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미처 극복하기도 전에 앞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했다. 이 사태는 아직 종식되지도 않아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고 말았다.

교회학교를 다시 살려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주어졌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신학자는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내서 교회에 제시해야 한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반드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희망이 생겨날 수 있다. 암울했던 시기에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로버트 레이크스, 그리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을 다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정성들을 모아 교회학교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 한국교회 주일학교 위기와 대안 (1) 주일학교 무엇이 위기인가?

이정현 목사 / 기독교신문 / 2022. 04. 27

이정현 목사(청암교회) ☞ 총신대 졸업 후 미국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에서 기독교교육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군산드림교회 교육디렉터로 섬기면서 큰 부흥을 경험하였고, 스쿨처치 사역자로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는 서울 청암교회를 담임하며, 총신대와 개신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교사 베이직> <수상한 큐티> <애들아, 학교를 부탁해> 등이 있다.

아이들 숫자에만 관심을 두다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는 처참히 무너졌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성인들과 달리, 신앙의 홀로서기가 어려웠다.

그나마 부모들이 깨워서 억지로 교회로 보냈고, 선생님들이 주일 아침마다 집에 데리러 와서 교회로 갔고, 교회에서도 철통 감시가 있어야지만 예배가 가능했다. 성인의 도움 없이 신앙의 홀로서기가 힘든 것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현 주소였다. 아직 신앙으로 홀로 설 수 없는 아이들에게 집에서 홀로 유튜브나 줌이나 메타버스로 영적인 활동을 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다.

총회 연구결과에 의하면,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청소년들의 종교생활이 26.2%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열심히 준비했고, 교육부 사역자들은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에 힘썼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의 2/3가 자신의 믿음이 떨어졌다고 답변하였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우울증만 코로나 이전 보다 28%나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교회 주일학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주일학교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내부적으로 믿음의 수준이 낮은 신자들을 양산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부딪혀있다.

1. 교회 내부의 문제 : 낮은 수준의 믿음을 양산한 주일학교

미국 사우스웨스턴(Southwestern) 신학교에서 청소년사역에 대해 가르친 웨슬리 블랙(Wesley Black) 은퇴교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많게는 70%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교회를 떠난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였다.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본인의 믿음 없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부모는 교회에서 중직자로 열심히 섬기는데, 자녀들은 주일예배를 결석하는 경우도 많았다.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 좀 한다는 지역의 교회들 중고등부는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몇 년 전 언론 기사에서 나왔듯이 교회 중직자의 55%가 시험 기간에 자녀들을 교회 대신 학원에 보낼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망라하면, 지금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부모의 강요와 선생님의 끈질김 속에서 간신히 예배만 출석하던 아이들이, 코로나 시국에 다 밖으로 빠져 나간 것이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확고한 믿음만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억지로 잡아 놓고 예배하게 하던 아이들에게 자유와 방임을 주니까, 썰물 빠져나가듯이 교회 밖으로 다 나가 버린 것이다.

그간 믿음 없는 세대를 양산한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주일학교 사역을 해왔다. 대형교회들은 주일학교 숫자도 많고 시스템도 좋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녀들의 신앙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는 잘 투자하지 않는다.

그간 주일학교의 가장 큰 관심은 아이들의 영혼구원 보다는 출석 숫자에 있었다. 어느 교회, 어느 교육부서에 몇 명 모이느냐가 성공의 기준점이었다. 심지어는 아이들 숫자를 기준으로 부서 예산을 차등 배부하는가 하면, 사역자의 진급 및 사임의 사유가 숫자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주일학교 숫자가 적어서 실패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실패라는 사실일. 자꾸 숫자 중심으로 가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인기 연예인 초청 또는 고가의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출석 숫자에 연연하는 자세를 뛰어 넘어서, 기독교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데 힘을 쏟아야 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많은 경우 교회 주일학교에는 슬로건만 있지, 제대로 된 실행 방안이 없다. 기독교세계관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려면, 주일에 단 1번의 예배로는 불가능하다. 주중에도 교회에서 모여야 하며,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부교역자 시절, 청소년들에게 참된 영성과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다. 매주 토요일 2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소그룹으로 공부했다.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이 된 아이들은 시험기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대학교 입시 면접이 주일에 있으면, 가뿐히 그 학교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지금 주일학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내부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 것이다.

2. 교회 외부의 문제 : 아이들이 귀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가장 귀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 작년 출생률이 0.81로 전 세계에서 출생률 꼴찌를 기록하였다.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총 26만 5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출산율 문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문제인 동시에, 교회에도 크나큰 문제가 되어 버렸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10%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숫자는 약 2만6000명이다. 대한민국 전체 교회 숫자는 약 5만7000개 정도 된다. 만약 작년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10%를 전체 교회 숫자에 그대로 대입하면, 두 교회 당 한 교회에는 신생아가 없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대형교회를 빼고는 주일학교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과거 주일학교 부흥기를 이끌었던 시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X-세대였다. 이때는 가정마다 자녀들이 많았다. 1970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숫자는 100만 명이 넘었다. 지금보다 거의 4배나 많은 숫자이다.

과거 한국사회를 보면 아이들은 어디나 많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도 알아서 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성경학교 때 동네에서 북 한번 치면, 100명의 아이들도 쉽게 모았다. 비신자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 가 있는 것을 비신자 부모들은 더 좋아하기도 하였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해주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좋은 것을 배운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간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성장은 이러한 인구 폭발과 연관성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 부모에게도 자녀가 귀하고, 조부모에게도 손자 손녀가 너무 귀해져 버렸다. 따라서 과거처럼 노방 전도에 의해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기가 무척 어렵다. 길거리에서 만난 아이를 부모 허락 없이 교회로 데려오다가, 인신매매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주일학교 사역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지금 주일학교 자녀들의 부모세대는 기존세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지금 부모세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1) 자녀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다. 우선은 자녀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렇다.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나머지, 지금 MZ세대 부모들은 여전히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기 주저한다.
- (2) 자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교회를 정할 때도, 그 교회 주일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을 깊게 따질 정도다.
- (3) MZ세대 부모들 가운데 모태신앙은 많지만, 그 전 세대 부모들에 비해서 믿음이 깊지는 않다.
- (4) 비신자 MZ세대 부모의 경우 교회에 대한 반감 및 경계심도 상당히 큰 편이다. 과거처럼 교회에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있다고 쉽게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다.

이렇게 변해버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들은 숫자 타령을 하고 있고, 적은 숫자인데도 기존 부서체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하다. 이제는 과거 주일학교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 글에서는 주일학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루겠다.

■ 한국교회 주일학교 위기와 대안 (2)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정현 목사 / 기독교신문 / 2022. 05. 04

성경은 자녀의 신앙교육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가르친다

부모에게 좋은 영향 받은 학생들이 신앙생활과 학업에 성공한다는 연구조사 결과 나와

부모들을 신앙교육의 구경꾼으로 방치하지 말고 자녀들 영적 양육의 책임자로 세워야

미국 신문 스타 텔레그램(Star Telegram)에서 미국 테렌카운티에 살고 있는 고3 학생들 중에서 학교 성적 상위 20% 안에 드는 학생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다. 이른바 ‘학업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삶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연구 조사였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첫째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둘째로, 그 영향력은 바로 부모였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생 최고의 상담가를 부모라고 답했고, 삶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는 부모라고 무려 70%나 응답했다. 셋째로, 식구들 사이의 유대 관계가 좋았다. 41%의 학생들이 매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스타 텔레그램의 리서치 결과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은 부모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다. 공부를 잘하고, 삶의 태도가 좋은 학생들 역시 부모와 관계가 매우 좋았다고 답변했다. 결국 자녀들의 신앙과 삶에 최고의 영향력은 부모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데이터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미국 노틀담대학교의 교수 크리스천 스미스(Christian Smith)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미국 전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특별히 신앙심이 좋은 아이들부터 신앙심이 전혀 없는 아이들까지 등급 구분을 했고, 그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스미스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믿음이 좋은 학생들의 경우 미디어 시청 시간이 짧았고, 건전한 성의식이 있었으며, 일탈행위가 별로 없었고, 감정기복도 적었다. 종합해보면 삶의 긍정적 지표가 꽤 높았다.

자녀들의 신앙교육 책임은 주일학교 사역자나 담당교사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영적 양육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결과에 따른 핵심 질문은 ‘왜, 신앙심이 좋은 아이들이 삶의 좋은 지표를 보였는가?’였다. 그 정답 역시 ‘부모의 영향력’이었다. 부모와 관계성이 좋은 아이들이 신앙심이 좋았고, 삶의 모든 지표도 건강하게 나타났다. 이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외출하고 식사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부모에게 상담을 받으며 스스로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부모의 힘이다.

‘왜 주일학교가 잘 안되는가?’ ‘왜 신앙의 세대 전수에 실패하는가?’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필자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성경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는 주일학교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좋은 교역자를 청빙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주일학교가 잘 되고, 아이들의 신앙이 잘 자랄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방법론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성경은 자녀들의 신앙에 제1 원동력이 부모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신명기 6장 4~9절을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정답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시작하는 단어가 ‘쉐마(들으라)’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통 ‘쉐마’라고도 부른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5월 가정의 달 설교 본문 또는 부모세미나 때 많이 활용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쉐마’란 바로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인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 교회 안의 초등학생, 청소년들, 대학생들에 대한 신앙의 일차 책임을 담당교역자나 교사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어떤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 주된 책임은 교역자나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게 하는 것은 부모 몫이다.

우리는 그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크게 놓치고 있었다. 부모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에, 가정에서 전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다. 교회는 교육부서 사역을 뛰어넘어서 부모들을 전체적으로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부모들의 삶은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 솔직히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적인 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많은 부모들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좋은 교육시설과 시스템이 있는 교회를 선호했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주일학교를 위한 좋은 설비와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이런 방식으로 주일학교에 투자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법을 좇아간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을 겪는 동안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를 막론하고 주일학교가 모두 처참하게 무너졌음을 부정할 수 없다. 외형적으로는 주일학교 운영방식이 몹시 현란하고 탁월해 보였을 지라도, 이런 방식만으로는 결과적으로 아이들 신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과연 다음세대 신앙전수에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정직한 답을 구해야 한다.

2021년의 시작과 함께 다음세대에 관련된 충격적 기사 2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 기사들은 우리 시대 주일학교 시스템에 대해 전면 재고하게 했다.

첫 번째 기사는 2021학년도 전국 주요 신학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정원이 거의 다 미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심지어 서울에 소재하는 대형 교단의 신학교들마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더 이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주의 종’ 곧 헌신자들이 교회 안에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기사는 2021년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발표한 ‘코로나 이후 청년들의 신앙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다. 조사결과 교회 청년들의 47%는 ‘앞으로 10년 동안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그동안 부모에게 끌려와 억지로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교회 나갈 일이 없을 것이라는 청년들이 상당수이다.

바로 이 모습이 대한민국 주일학교의 현주소이다.
우리 자녀들 세대는 신앙의 홀로서기에 완전히 실패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부모들을 양육하고, 교육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더 이상의 신앙교육의 구경꾼으로 방치하지 말고, 부모들이 자녀들 영적 양육을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파는 놀랍게도 이단으로 분류되는 모르몬교다. 모르몬교를 케이스로 제시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들이 고속 성장한 원인만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며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90년 800만명이 채 되지 않았던 모르몬교 교세는 2020년에 1600만명을 훌쩍 넘겼다. 40년 만에 두 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정통 기독교 교단들이 감소세로 접어든 21세기 이후, 모르몬교는 오히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10년 동안 무려 45%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퓨리서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모르몬교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부모들과 자녀들이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예배하며,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있다. 주일학교도 없는 모르몬교이지만 오히려 청소년과 부모 사이에 신앙 유사성이 매우 높다. 그들은 신앙의 세대 전수에 성공하고 있기에 계속 성장을 하는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앙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가정이고, 부모이다. 더 이상 주일학교라는 시스템에만 매이지 말아야 한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신앙의 세대통합에 힘쓰며,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되게끔 훈련시켜야 한다. 다음 호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겠다.

■ 한국교회 주일학교 위기와 대안 (3) 세대통합교육

이정현 목사 / 기독교신문 / 2022. 05. 18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는 것이 다음세대 위한 최고의 교육
세대분리형 교육에서 세대통합형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교육 주체는 부모가 돼야
어른들 사역에 아이들 동참하는 형식이 아니라 모두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세팅 필요

미국의 많은 교회는 이미 20년 전부터 주일학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왔다. 주일학교를 비롯한 다음세대 사역이 안 되도 너무 안 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 인구가 50% 아래로 떨어졌고, 청소년세대라 하는 Z세대 중에 기독교세계관을 소유한 학생들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교단의 경우 연간 침례(세례)를 받은 청소년들의 수가 1971년 약 13만명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8만명도 채 안 되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 사이 전체 인구수는 1억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 남침례교단 안에 주일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가 일어났다. 그 핵심은 바로 온 세대를 통합하는 주일학교로 전환하는 그림이었다. 실은 이러한 변화가 교회 교육에 처음 시도된 혁신적 변화는 아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일 뿐이다.

우리는 막연히 주일학교가 교회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지금처럼 각 학령별 부서가 있는 세대분리형 주일학교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주일학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의 활동기인 178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진다. 미국에서 주일학교 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800년대 중반 이후의 현상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주일학교가 활성화 된 것은 채 200년이 되지 않은 셈이다.

산업화·근대화의 물결과 전쟁 후 아이들 출생률 증가, 공립학교 시스템의 시작 등 사회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연령별 신앙교육이 확산된 것이다. 그 전까지는 교회들이 모두 세대통합적 예배와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세대통합 교회교육은 지금 당장 시작하면 좋을 가장 안전한 방식의 다음세대 사역이다.

미국교회는 영적대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 초반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그 부흥기 당시 미국교회의 주일풍경은 이러했다. 주일 오전이 되면 일가족이 함께 마차를 타고 동네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 교회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집에서 가정예배가 있었다. 주일학교가 따로 없었다. 그냥 온 식구들이 함께 교회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주일예배의 전부였다.

당연히 유년부, 초등부 등을 따로 담당하는 사역자가 없었다. 청소년 사역자도 없었다. 아이들은 그냥 부모랑 같이 예배했고, 오늘날과 비슷한 역할을 당시 교회에서 굳이 찾는다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전부였다. 최초의 주일학교 풀타임 사역자는 1937년이 되어서야 세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주일학교 전문사역자들이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였다.

교회의 다음세대들, 곧 자녀들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가 직접 성경을 가르쳤을 때 더욱더 영적인 수준이 높았다. 실제로 주일학교만 열심히 다닌 학생과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학생의 향후 신앙 양상 차이를 연구해 봤는데,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학생이 끝까지 신앙을 잘 사수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정답이 나왔다고 본다. 이제는 세대분리형 교회교육에서 세대를 통합하는 교회교육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 시대 속에서 이 땅의 다음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세대분리형 교육에서 세대통합형 교육으로.

필자가 목회하는 청암교회는 74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교회인데, 세대통합형 교육을 실천하면서 괄목할만한 열매들이 나타났다. 참고로 필자가 청암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대통합 목회의 모습들을 소개한다.

1. 말씀의 세대통합 - 성경묵상(QT)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말씀의 세대통합이었다. 이는 교회에서 실행하기에 가장 수월한 일이었다. 미취학부서부터 주일학교 전 부서가 <매일성경>으로 QT를 하고, 주일설교도 같은 본문으로 통일했다. 새벽예배 설교도 <매일성경> 본문으로 나갔고, 목장모임도 마찬가지로 진행했다. 부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전교인들 대상으로 QT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온 세대가 같은 말씀을 매일 볼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가정에서 신앙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일에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게 만들었다. 주일의 말씀 본문은 이미 부모가 QT를 통해 학습한 것이다. 또한 부모가 새벽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이 자녀들의 QT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말씀을 통한 대화가 진행됐다. 이런 방식으로 가정에서 말씀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우리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기도의 세대통합 - 온 가족 새벽기도회

우리 부모세대처럼 기도를 많이 한 세대도 없을 것이다. 안타까운 건 이렇게 좋은 기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법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 중 약 2/3가 예배당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 특히 젊은 분들은 경기도권에 많이 거주한다. 따라서 주일을 제외하고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매우 힘든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첫 주 토요일이면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열린다. 말 그대로 온 세대가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다.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자리이고, 어린이들도 2/3 이상 참여하는 뜨거운 집회이다. 기도회 마지막 시간에는 담임목사가 아이들을 한명씩 안수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간식을 나누며 헤어진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많은 교인들이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교회에 완전히 자리잡은 사역이 되었다.

3. 예배의 세대통합 - 절기 세대통합예배

교회의 주 절기를 중심으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부임 전에 미리 구상하였다.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예배, 창립기념주일, 어린이주일 이렇게 하니까 대략 7번 정도가 나왔다. 약 2달에 한번 꼴로 세대통합예배가 가능한 그림이었다. 그리고 이날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일 오전에 한번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보통 교회에서 '세대통합예배'라고 하면 주일 오후나 저녁 특별한 시간에 함께 하게끔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교인이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아예 주일학교예배를 없애 버리고 어른들과 매주 함께 예배하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불만족이 매우 크다. 그런 면에서 교회 큰 절기 중심으로 하는 대가족예배, 세대통합예배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본당이 워낙 넓어서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 적격이었다.

세대통합 예배의 세팅은 매우 중요하다. 어른들 예배에 아이들을 동참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도 만족하고 행복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대통합예배는 축제 분위기 속에 모든 부서 아이들이 예배에 직접 동참케 한다. 심지어 대표기도도 주일학교 학생이 한다. 결과적으로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예배가 되었다.

4. 선교의 세대통합 - 온 가족이 함께하는 단기선교

온 가족이 함께 선교지에서 땀을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기억보다 더 값진 기억은 없었다. 해마다 방학이 되면 해외여행을 많이 떠나는데, 그림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 일가족이 함께 해외여행 가는 경비로, 해외에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 온 가족이 함께 복음을 증거 하는 것과 해외여행 떠나는 것은 감히 서로 비교가 안된다.

복음을 위해서 온 식구가 한마음을 갖고 한 몸으로 움직이며, 함께 동참하는 것 보다 더 좋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없을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방학이면 세대가 함께 해외와 국내에 복음을 증거하러 떠날 계획이다.

누군가 나에게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에 있어서 대안을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과감히 세대통합이라고 말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로 가야 한다. 교회 교육은 하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교육의 주체는 부모여야 한다. 세대통합 교회교육. 지금부터 실행하면 주일학교의 미래는 안전하다고 확신한다.

■ 긴급진단 - 사라지는 다음세대, 이대로 좋은가 (상)

“2030년 주일학교 90% 사라질수도” 비관적 전망

기독교연합신문 / 손동준 기자 / 2021.05.11.

○ 교세통계에 나타나는 뚜렷한 다음세대 감소세

“언젠가부터인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린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SNS에 올라온 한 목회자의 글이 많은 이들을 서글프게 했다. 교회의 미래인 다음세대가 사라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마다 예장 통합총회(총회장:신정호 목사)가 발표하는 교세통계는 충격적이다. 통합이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주일학교 통계를 보면 2010년 6만4,232명이던 유년부 인원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4만3,461명(-1만5,425명)이 됐다. 2010년 7만4,327명이던 초등부는 2019년 4만8,807명(-2만5,520명)으로, 2010년 8만9,900명이던 소년부는 2019년 5만2,427명(-3만7,473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마저 멈췄던 지난해 통계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가오는 가을에 발표될 교세통계는 평년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 “현장은 초토화 분위기”

규모가 있는 교단들은 저마다 다음세대 실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만 2천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소강석 목사)는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257개 교회 담임목사 및 주일학교 담당자들에게 ‘주일학교 부서 조직 현황’을 물었더니 “주일학교 부서가 없다”는 교회가 22.4%에 달했다. 이마저도 전수조사가 아닌, 자발적인 응답자들의 답변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예장 합동 교단 내 주일학교 위기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장 합동 교육개발원의 임상문 목사는 “초토화 분위기”라며 “2030년에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교계 일각의 비관적 전망에 공감”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6,600여 교회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동회장:이철 목사)의 2021년 연회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8만여 명이던 전체 교인 수가 1년 만에 122만여 명으로 무려 5만 7천여 명이 줄었다. 특히 다음세대 감소를 엿볼 수 있는데 ‘세례아동’(유아세례 또는 아동세례를 받은 12세까지의 아동) 수가 2019년 7만9,923명에서 2020년 7만3,215명으로 6,708명 감소한 것. 교회에 출석한 아동을 뜻하는 ‘원입아동’ 수도 2019년(7만7,232명)에 비해 6,689명이나 줄었다. 감리회 본부 교육부 총무 김두범 목사는 “한국교회가 장년 중심의 목회에 집중한 것이 위기를 가속화 했다”며 “그동안 교회학교는 인력과 재정 투자의 마지막 순위였다. 지금의 위기는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1,600교회 규모의 중형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이건희 목사)는 어떨까. 총회 교육원의 김진아 목사는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를 대략 9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 교회학교를 포기하는 교회가 늘어나면서 얼마 전부터 일부 노회에서는 여름 프로그램을 연합으로 진행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코로나로 심화된 위기

코로나는 교회 학교의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김진아 목사는 “방역기준에 따라 예배가 회복되는 와중에 어

린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교회에 가장 늦게 복귀하는 경향이 지방과 수도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연세가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사모하면서 과거의 신앙생활을 그리워하는 반면, 학령기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크고, 예배 복귀에 대해서도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부모의 문제가 아이들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교회학교의 위기로 이어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어린이사역 전문가인 해성교회 김신근 목사는 “유초등부의 타격이 크다”며 “어른들의 경우 60% 이상 회복됐다면, 아이들은 출석률이 30~4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면서 교회마다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했다. 젊은 가정일수록 매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에 빨리 적응했고, 영상으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며 “결국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후에야 오프라인으로 복귀한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런가하면 ‘교사의 역량’도 심각한 위기다. 예장 합동 교육개발원 임상문 목사는 “코로나 2년차가 되면서 교회 모임이 어려워지는 사이 교사교육도 많이 부실해졌다”며 “교사 교육은 코로나 이전에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각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의 질이 낮아질 뿐 아니라 교사 스스로 사명에 대해 흔들리게 되면서 결국 교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게 임 목사의 예측이다. 그는 또 “교사는 없고 학생들은 케어가 안 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빨리 승부를 보지 못하면 조만간 교회학교들이 많이 무너질 것이다. 교재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단의 자원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긴급진단 - 사라지는 다음세대, 이대로 좋은가 (중)

“교회교육, 고민하고 부딪히면 분명 답은 있다”

기독교연합신문 / 손동준 기자 / 2021.05.18.

한국교회 전반적 침체가 출산 절벽과 맞물리면서 교회학교의 위기가 ‘심각’ 상태에 이르렀다. 얕은 데 얕은 격으로 코로나19까지 장기화 되면서 많은 교회학교들이 사역을 축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변칙이는 아이디어로, 혹은 뜨거운 열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는 이들이 있다. 본지는 지난주 “2030년 주일학교 90% 사라질 수도”라는 비관적 전망 기사를 통해 교세통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다음세대 감소 현상을 다뤘다. 이번 호에서는 교회학교 감소에 맞서는 교회들의 노력을 취재했다.

○ 찾아가는 주일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창원중앙교회(담임:이광훈 목사)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교회 학교를 이끌어 갈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이들이 못 오면 우리가 가자”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의 결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교육의 근간을 흔들 중대한 방향전환이 이뤄졌다. 근래 한국교회에선 쉽게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통합교육’이 이뤄진 것. 통합교육은 교육부서를 ‘유아·유치부·초중고’로 나눠 학년별로 각각의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것과 반대로, 전 연령이 함께 교육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교회 교육디렉터를 맡고 있는 윤지원 목사는 “우리교회는 통합교육을 지향해온 교회가 아니다. 문고리사역, 가정으로 찾아가는 교회학교를 하다 보니 저절로 통합교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가정에는 다양한 학년의 아이들이 형제자매로 함께 살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했던 것. 윤 목사는 “손윗형제가 교역자를 도와 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과 책임감이 길러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점이 통합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았다.

○ 창의적인 방법으로 위기 돌파하는 교회들 주목받아

○ ‘가정’ 비중 커지면서 ‘통합교육’ 필요성도 함께 상승

교회는 최근 5월 가정의 달 행사에서도 ‘통합교육’의 특징을 적극 활용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 이름 ‘반지동’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반지원정대’라는 4인 이하 팀을 여럿 꾸렸다. 팀 구성은 청소년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하

다. 팀별로 지역을 탐방하는 미션을 부여해 지역탐방을 기본으로 쓰레기 줍기, 어르신들께 인사하기 등의 미션을 수행하도록 했다. 팀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리더를 맡고 형님 누나들이 동생들을 인솔했다. 윤 목사는 “그간 한국 교회가 학년별로 교회학교를 세분화하는데 집중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의 부작용이, 각 부서를 지나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 못하고 따로 노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로 우리 안에서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창원중앙교회는 다가오는 여름수련회도 같은 형식으로 네 명씩 조를 짜서 여행을 하는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윤 목사는 “리더십을 훈련해서 여행이 가진 세계관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매우 좋은 교육 될 것”이라며 “기존의 집회형식의 수련회를 넘어서보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 긴급진단 - 사라지는 다음세대, 이대로 좋은가(하)

"교단은 지원 힘쓰고 가정 역할 강조하라"

기독교연합신문 / 손동준 기자 / 2021.06.01.

○ 교단은 플랫폼 돼야

예장 통합총회(총회장:신정호 목사)는 지난해부터 5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학교 회복의 날’로 지키고 있다. 예장 통합 총회는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교회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다.

지난 호에 소개했던 창원중앙교회(담임:이광훈 목사)의 사례도 지난해 말 열린 총회정책세미나에서 사례 발표 시간을 통해 전국 교회에 알려졌다. 역으로 창원중앙교회도 교단 내 모범적인 교회들의 방법을 적극 수용해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교육자원부 총무 김명옥 목사는 “규모가 큰 교회들은 그나마 상황이 괜찮지만 작은 교회들이 느끼는 막막함은 매우 크다”며 “총회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학교의 모델들을 계속해서 소개하면 서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총회장:이건희 목사)의 경우는 교단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다음세대 위기’ 앞에서 뚝뚝 뭉치고 있다. 이들 역시 2년 전부터 총회 결의로 어린이 청소년 주일(5월 첫째 주)을 지키고 있다. 교단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 말뿐인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여름성경 학교 현장 개최가 어려워지고 긴급하게 비대면 교재 제작이 시급해지자 전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재정을 모았다. 총회 교육원의 김진아 목사는 “대형 교회들이 준비한 교단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끈끈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 결국은 가정이다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있어 교단과 교회의 역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목회장:이철 목사)는 코로나 19로 주일 예배 모임 자체가 불가능했던 지난해부터 교육부서별 예배영상을 제작해 매주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가정에서는 영상을 시청하며 교회 학교에 나갈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랬다. 어쩔 수 없이 다가온 비대면 상황이지만, 교회 교육에서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예측하기 힘든 미래 교회 교육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감리회 교육국 김용환 부장은 “온라인이 강조되면서 가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배영상의 가치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소강석 목사) 역시 어려움을 헤쳐 나갈 도구로 ‘온라인 콘텐츠’를 택했다. 감리회와 마찬가지로 신앙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디테일’을 살렸다. 바로 코딩을 성경 교육에 접목하는 등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의 요구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그런가하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스스로 교재를 즐겨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낸 교회도 있다.

대학로에 위치한 혜성교회(담임:정명호 목사)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큐티책을 ‘맞춤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교육부서 스스로 교재를 만들다보니 아이들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다. ‘다이어리’ 형태의 큐티책에는 교회 행사뿐 아니라 학생들의 생일 등 개인적인 일정까지 세세하게 기록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큐티책으로 가정에서 신앙 공부를 한 뒤 한 달에 한 번 교사들과 함께 퀴즈를 푼다.

혜성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핵심은 ‘가정’이다. 이 교회 중등부를 맡고 있는 천다니엘 목사는 “가정이 살아나지 못하면 교회학교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담임목사의 철학 아래 코로나 이전부터 가정에서의 교육을 강조해 왔다”며 “믿지 않는 가정의 경우 학생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